

지역 매아리

금구면주민자치위, 편백나무 명품길 환경정화 활동 펼쳐

김제시 금구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승일)는 4일 자치위원 및 발전협의회 회원과 금구면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오봉리 양석마을 인근의 방치된 쓰레기 줍기 및 산책로 구간의 시설물을 점검하였다. 주요 청소구간은 양석마을 회관을 시작으로 편백나무 숲, 두릅나무 군락지, 당월저수지를 거쳐 다시 양석마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약 2시간 동안의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졌다.

정화활동에 참여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명품길 걷기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 대청소를 한 후 깨끗해진 명품길을 보니 뿌듯하고 보람되었다"고 말했다.

최승일 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지역 행사에 서로가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한편 '제7회 금구 아름다운 편백나무 명품길 걷기행사'는 오는 4월 13일 오전 9시 금구면 오봉리 양석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4일 40명의 회원들이 금산사 수월담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역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발전', '여성의 잠재력 발휘를 통한 세상의 변화' 등 한국정신문화연구소장 박대현 강사님 등이 초빙되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를 가지며, 참여자 상호간의 화합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문순자(60)씨는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여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제시는 여성의 일자리, 안전, 돌봄, 건강에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성 뿐만 아니라 남녀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모악산(금산사) 주차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상생·평화의 길을 걷다

김제모악산축제 오늘부터 7일까지 개최 모악산(금산사) 주차장 특설무대 일원서

김제모악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김제모악산축제가 올해로 12년차를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모악산(금산사) 주차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모악산, 상생·평화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김제모악산축제는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로 3일간의 일정을 가득 채웠다.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는 기존 김제모악산축제 농산물 홍보판매관의 확대·운영 및 19개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통하여 소득증진형 축제를 표방하였으며 모악산 고유의 콘텐츠

를 활용한 '모악산 마실길 걷기 및 등반대회', '전국 어머니 노래경연 대회', '모악산 창작 뮤지컬' 등 모악산만의 스토리가 있는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만개한 벚꽃망울과 봄바람이 부는 축제의 장 한가운데 지역의 목조각, 도자기의 무형문화재 시연과 우도 농악 공연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마련해 관광객이 평화로운 봄의 분위기와 예술의 아름다움에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4월 5일 오후 4시 현숙, 송대관, 김용임, 임현정, 오로라, 성진우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과 4월 6일 오후 4시 30분 강진,

배일호, 김수영, 정정아 등이 출연하는 '모악산 가요쇼'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광객의 눈과 가슴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4월 7일 오후 3시 폐막공연에서는 국악인 오정혜가 펼치는 감동과 설렘의 특별공연이 관광객의 힐링의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토록 화려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외에도 모악산을 찾아온 상춘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시설을 점검하고 확충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제12회 김제모악산 축제는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승화하기 위하여 많은 열정을 가지고 준비한 축제다. 봄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그 어느 축제 때보다 아름답고 즐거운 봄의 기억을 듬뿍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속도낸다

완주군, '쌀 생산조정 추진단 회의' 개최

완주군이 쌀 생산조정 추진단 회의를 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지난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농협, 농어촌공사, 관련 대표농가 등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생산조정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달라는 정부 대책에 따라 완주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 기준 완주군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는 46.4ha(목표대비 16%)가 신청·접수됐으며, 영농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상황 보고와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논 농수매가 인상, 농기계 및 RFC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다양한 추가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 확보, 용수 공급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로 쌀 안정 생산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최장혁 식량지원팀장은 "정부에서 쌀 생산조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만큼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쌀 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관내 소하천 정비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빨래터 등 체험시설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 소하천 주민 휴식공간 각광

소하천 295개소 355km 정비, 산책로·돌레길·빨래터 등 마련

완주군의 소하천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소하천은 295개소 355km에 이르며, 소하천을 정비해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완주군은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농업용수공급 등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돌레길, 휴식시설, 운동 공간 및 체험시설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빨래터가 마련된 구이면 태실소하천에서는 지난 3일 구이유치원 원생이 빨래터 현장을 체험하기도 했다. 태실소하천은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소하천 내 정비된 빨래터

가 있어 지금도 주민들은 소하천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세탁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기성세대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특히, 군은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62억원을 투입, 경천면 죽림소하천 등 5개소도 정비 중에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더해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친수공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공유해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주)한우물 농업법인 '잡채볶음밥' 대만수출 출정식

(주)한우물 농업회사법인(대표 최정운)에서는 4일 김제 쌀과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잡채볶음밥' 8.1톤을 대만으로 수출했다.

이미 국내에서 냉동볶음밥으로 소비자에 큰 인기를 끌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주)한우물은 세계적인 유통회사 중 하나인 코스트코(COSTCO)와 직접 계약 체결하여 수출하게 되었고 이날 중순에는 대만 코스트코 전 매장(14개소)에 입점 대만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주)한우물은 작년 5월, 국내최초로 기업 간 1:1 납품계약으로 '유기농 곤드레 나물밥'을 미국에 수출, 미국 서부 코스트코(57개소) 전 매장에 입점했으며, 14만달러 수출성적을 거뒀으며,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잡채볶음

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잡채볶음밥은 돼지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가정간편식(HMR)으로 대만 바이어의 적극적인 어필로 수출이 성사되었고, 추후 호주, 캐나다 등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그 성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현재 (주)한우물에서 김

제 쌀을 연간 7천톤 가량 소비하고 있으며 파프리카, 버섯 등 부재료 또한 김제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 및 농가 계약재배 등으로 지역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 모델로 뽑힌다. 이를 입증하듯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18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농산물, 2018 쌀가공품평회 TOP10, 2018 전북 농산물 가공품 수출우수분야 선정 등 다양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